

# ‘라이언킹’ 이동국 “끝 아닌 새로운 시작” 현역 은퇴 선언

SNS 통해 은퇴 발표...“23년 정든 그라운드 떠나기로”

내일 은퇴 기자회견·다음달 1일 최종전서 은퇴 경기

한국 축구 전설 ‘라이언킹’ 이동국(41·전북)이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이동국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은퇴 소식을 전했다. 그는 “아쉬움과 고마움이 함께 했던 올 시즌을 끝으로 저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았던 그라운드를 떠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은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오랜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23년 프로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다고 설명했다.

1998년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에서 데뷔한 이동국은 2001년 독일 분데스리가 베르더 브레멘으로 이적하며 첫 유럽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럽 적응 실패 후 국내로 돌아온 이동국은 2002년 광주 상무(현 상주 상무)에서 부활한 뒤 2007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미들즈브러에 입단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2008년 성남 일화(현 성남FC) 거쳐 2009년부터 전북 현대에서 활약했다.

이동국은 전북에서 K리그 우승 7회,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등 구단의 ‘살아있는 전설’로 맹활약했다. 특히 2009년

입단 첫해 전북의 창단 첫 리그 우승과 함께 득점왕을 거머쥐며 최고의 시즌을 만들었다.

이동국은 지금까지 K리그 통산 547경기 228골 77도움으로 K리그 사상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전북 소속으로 360경기 164골 48도움이다.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75경기에서 37골을 터트리며 이 대회 최다골을 기록하며 K리그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로 명성을 떨쳤다. 이동국은 국가대표에서도 최고의 선수였다.

자신의 프로 데뷔해인 1998년 국가대표에 첫 발탁 때 1998년과 2010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 출전하는 등 A매치 105경기(역대 10위)에서 33골(역대 공동 4위)을 넣었다.

이동국은 “푸른 잔디의 경기장을 나섰던 기억, 유니폼을 입고 뜨겁게 제 이름을 불러주셨던 팬들의 환호, 그리고 팬들과 함께했던 모든 기쁨과 영광의 순간들, 수많은 기억을 이제는 추억으로 간직하며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라고 전했다.

이동국은 오는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은퇴 기자회견을 하고 K리그 최종전에서 마



지막 경기를 갖는다. 전북은 11월1일 오후 3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구FC와 홈 경기를 치른다.

지난 25일 울산 현대(승점 54)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한 전북은 마지막 경기를 남

겨두고 승점 57점으로 1위에 올라 있다. 대구전에서 비기지만 해도 K리그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한다.

이동국은 “다가오는 홈 경기가 등번호 20번을 입고 팬분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경기라 생

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 온다. 마지막까지 축구선수 이동국이란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뛰겠다. 저를 사랑해주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정승호기자



KT 위즈 이강철(오른쪽) 감독과 남상봉 사장. (사진=KT 위즈 제공)

## KT ‘창단 첫 PS’ 이강철 감독과 3년 20억원 재계약

명문구단 도약 목표 실현할 지도자

프로야구 KT 위즈가 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끈 이강철 감독과 재계약했다.

KT는 26일 “이강철 감독과 계약기간 3년, 총액 20억원(계약금 5억원, 연봉 5억원)에 재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이 감독은 2019시즌을 앞두고 KT의 3개 감독으로 부임했다. 당시 계약기간 3년, 계약금 포함 12억원에 사인했다. 내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가을야구에 나서게 된 올해 재계약을 통해 신임을 드러냈다.

2015년 1군에 진입한 KT는 2017년까지 최하위에 그치는 등 최하위에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해 이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6위로 도약하더니, 올해는 포스트시즌 진출 티켓까지 확

보했다.

KT는 “이 감독은 첫 시즌인 지난해 구단의 운영·육성 기조에 발맞춰 선수단 체질 개선과 승리 의식을 고취 시키며 창단 최초로 70승 돌파와 5할 승률을 달성했다. 올해는 유한준, 박경수 등 베테랑의 활약과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남상봉 KT 위즈 사장은 “이강철 감독은 부임 후 매년 ‘창단 최고 성적’ 기록을 경신하는 등 KT를 강팀 반열에 올리며 수원 야구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며 “선수단의 잠재력을 끌어낸 지도력과 역량을 인정했고, 중장기적으로 ‘명문구단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검증된 지도자다”라며 재신임 배경을 밝혔다.

서선욱기자

## 호날두 없는 유벤투스 5위 추락...2경기 연속 무승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빠진 뒤 유벤투스가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

유벤투스는 26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엘라스 베로나와의 2020~2021시즌 세리에A 5라운드 홈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후반 15분 안드레아 파발리에가 선제골을 내주며 골려간 유벤투스는 후반 32분 데얀 콜루세브스키의 동점골로 겨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다. 지난 라운드에서 강등권인 크로토네와 1-1로 비긴 유벤투스는 과거 이승우(신트트라위던)가 뛰었던 베로나와 또 무승부를 거두며 주춤했다.

이번 시즌 5경기에서 2승 3무(승점 9)를 기록한 유벤투스는 리그 5위로 추락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선두 AC밀란(승점 12)과는 승점 3점 차이다.

호날두의 공백이 컸다. 확실한 해결사의 부재로 유벤투스는 2경기 2골에 그쳤다.

김미희기자

## 양정모에서 손흥민까지...한국 체육요원 병역특례 변천사

올림픽 3위 이내·아시안게임 금메달 ‘체육요원’ 대체복무

‘단체경기시 출전선수만 병역혜택’ → 관련 규정 삭제

최근 정치권에서 세계적인 K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의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 특례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예술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의미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노영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며 대중문화예술인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병역특례 대상이 됐다. 예술·체육요원 적용 대상자다.

체육요원의 경우, 법으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병역법시행령 제68조 11항에 따라 올림픽 3위 이내 입상자와 아시안 게임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한다. 복무 기간은 34개월, 544시간이다.

병역은 국민의 의무 사항으로 관심이 대단히 높고, 예민한 문제다. 공정성과 특례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사회 일부에선 체육계의 병역특례에 대해서 불평한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1973년 법이 생긴 이후 개선책을 통해 변화한 체육요원 병역특례를 살펴본다.

### ▲1호는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양정모...총 976명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 3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병무청에 따르면, 1호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양정모(67)다. 시작 당시에는 기준과 대상자가 무척 많았다.

현행 유지 중인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기본으로 해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내면 됐다. 눈에 띄는 건 한국체대 졸업생이다.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면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특례대상자가 급증하자 1990년 4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이 기준은 현재까지 적용

받고 있는데 2002년과 2006년 전 국민을 열광하게 한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과 월드컵에이스볼클래식(WBC)에서 면제조항을 신설해 병역특례를 부여하기도 했다.

월드컵은 16강 이상, WBC는 4강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타 분야·종목과 경쟁성 문제, 고무줄 기준 논란을 불러 이후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6월에는 ‘단체경기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과거에는 실제 출전한 선수에게만 혜택을 부여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동메달결정전에서 흥명부 감독이 2-0으로 앞선 후반 종료 직전 수비수 김기회를 투입해 화제를 모았다. 김기회는 동메달결정전 이전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했다.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위한 홈 감독의 선택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법이 생긴 이후 특례를 받은 인원은 976명이다.

### ▲복무는 어떻게

체육요원 대상자가 되면 4주의 기초군사 훈련을 이수하고, 자신의 특기 분야(종목)에서 34개월을 봉사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특기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는 해외 봉사는 272시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채워야 한다. 34개월 이내에 544시간을 이행하지 못하면 체을 따지자 복무가 연장된다.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교육), 공익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복무 분야는 ▲선발 당시 체육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분야 학과를 전공 또는 해당 종목에서 선수 활동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지도분야에 종사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에서 해당 종목의 선수, 코치, 감독 등으로 종사 ▲문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체육지도자 활동이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프로선수 참가가 허용된 종목에서 임성한 경우에는 프로팀에서 뛰는 것도 해당한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면서 재능기부와 봉사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



축구스타 손흥민(28·토트넘)이 지난 5월 8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병대 9여단 92대대에서 열린 기초군사훈련 수료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혜택을 받은 손흥민은 이날 약 3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퇴소했다. (사진=해병대 제공)

광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체육요원 복무 관리 부실 지적도 있어

체육요원 복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과거 축구 국가대표 출신 한 선수가 봉사활동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들통이 나 국가대표에서 영구제명되는 일이 있었다.

철저한 관리와 재발 방지를 다짐했으나 일부에선 취지에 맞지 않고, 수혜자를 체육요원 편익에 따라 정하는 부실이 여전하다고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무봉사 기간 중인 체육요원(40명)이 실시한 봉사활동 중 약 69%가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53회 중 약 69%에 달하는 591회의 봉사활동이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공익캠페인, 자선경기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7회(약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지에 맞지 않는 지적에 문체부는 “엘리트 선수들도 청소년에 해당하기에 법적 및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규정상 봉사 대상 비율을 정해 놓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체육요원 편익에 따라 수혜자를 선정할 수 있는 부분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운동선수들이 병역특례로 이행하는 봉사활동을 엘리트 선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민정기자